

의복의 정숙성 ·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1)

— 자아실현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Actualization Variables on the Modesty and Aesthetics in the Selection of Clothing —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교 수 강 경 자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Sang University
Professor : Kyung-Ja Kang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self—actualizat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of adult women on the modesty and aesthetics in the selection of clothes. The questionnaire were completed by 647 women in taegu and jinju.

The major findings of f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Marital status has effect on the self—actualizing values. religion, occupation and income have effect on self—acceptance. Marital staus and religion have effect on nature of man.
2. Frequency of contact with mass media has effect on the modesty of clothing. Self—actualizat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have no direct effect on the modesty of clothing.
3. Self—actualizing values, self—acceptance, nature of man, income, frequency of contact with mass media have direct effect on the aesthetics of clothing.

1. 서 론

인간이 언제, 왜, 어떻게, 하여 처음으로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는 확실하지 않아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Ryan¹⁾은 의복의 착용동기를 수치관념, 신체보호, 신체장식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착용 동기를 논할때 보호성과 함께 장식성이나 정숙성이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들 이론들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의복의 기원설에서 Wundt²⁾와 Shurtz³⁾는 정숙성을 의복의 기원으로 보았고 Flügel⁴⁾이나 Ellis⁵⁾는 정숙성의 선천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의복에서 그 기준은 관습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Hurlock⁶⁾, Rudofsky⁷⁾는 의복의 기원으로서 정숙성을 부정하고 전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견해는 Langner⁸⁾나 Latzke와 Hostetter⁹⁾, Anspach¹⁰⁾등도 인정하였다.

20C초 사회학자인 Thomas¹¹⁾는 정숙성은 사회적 정의에 의하여 비롯되고 관습화 되면서 발전되는 것이라 하였다. Jockson¹²⁾도 정숙성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 의복을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입는 것이라고 하였다. Goffman¹³⁾ 역시 주어진 상황에서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여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많은 다른 학자들은 신체를 장식하려는 욕구가 의복을 착용하게 된 최초의 이유라고 보고 있다. Starr¹⁴⁾는 지구상의 모든 종족중에서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종족은 있으나 장식을 하지않는 종족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Craig¹⁵⁾도 장식하는 행위는 신분을 상징하거나 우월감, 성적유혹, 의식, 자기표현 등을 하기위한 것으로 보았다. Mcjimsey¹⁶⁾는 이 장식의 욕구는 시대가 바뀌어도 거의 변함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명희¹⁷⁾는 현대인의 복식을 통한 미적표현은 의복심미성, 장식성, 신체재화의 세가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의복심미성은 의복자체의 색채와 질감의 조화, 의복디자인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Flügel⁴⁾은 의복착용의 기본동기를 논의하면서 정숙성과 심미성이 부적인 관계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국내의 선행연구^{17) 18) 19)}들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

였다. 이와 같이 상반된 이들 동기간의 관계는 의류학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어왔다. 오늘날 사회환경이 급변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복스타일은 매체로 보편적인 양상을 띠고 있지만 의복선택에서 여전히 미를 추구하거나 정숙한 측면을 강조하게되는 양면성은 배제할수가 없다. Flügel⁴⁾은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두가지 특성이 동시에 존재하는것은 모순된 것으로 보고 이 두가지 목적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거나 절충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상반된 행동성향은 개인성취의 장(場)이 되는 의복에서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자기를 성취하려는 실현정도는 개인의 잠재력, 환경, 그리고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Goldstein²⁰⁾의 견해에 비추어 볼때 의복을 통한 자기성취의 표현은 개인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이며 사회적·배경이나 상황과도 매우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환경의 영향도 다르게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몇 연구들에서 의복을 선택할때 정숙한 측면을 강조하거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미적측면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18) 21) 22) 23) 24)}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이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의복의 심미성과 정숙성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가치관이나 성격, 자아개념 등 심리적특성과의 관계성을 밝힌 선행연구들^{17) 18) 22)}이 이루어져 왔으나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을 자아실현을 위한 표현의 수단으로 보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실현과 의복의 정숙·심미성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는 인구통계학적변인(연령, 결혼여부, 학력, 수입, 직업유무, 종교유무, 가족형태, 성장지역)과 의복에서 자기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잡지접촉도를 관련시켜 분석하므로써 성인여성의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밝히고 다음으로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실현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중 어떤 변인들이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 그 관련변인을 경로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9C말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격을 논하면서 자아개념을 사용하여 왔다. 많은 학자들은 자아가 개인차를 나타내는 중심개념으로 인간의 성격과 행위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Maslow²⁶⁾는 개인차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것이 그의 욕구단계중 자아실현이라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간은 내적실현을 원하며 찾고 있어 자아실현의 욕구에 따라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바에 목표를 두면서 생을 영위한다고 하였다.

Goldstein²⁰⁾은 자아실현의 충동을 유기체가 소유하는 유일한 동기로 보았다. 그는 행동의 내적 결정인 자들과 유기체가 자아실현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찾는다라는 원리를 강조하면서 환경이 자아실현을 이룰 수단을 제공하며 동시에 자아실현을 방해하는 위험과 압력이라는 형태로서 장애물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인간은 환경과 타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ogers²⁷⁾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활동적이며 자아실현적이라고 보고 자아실현 경향이란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해 주는 그어떤것을 성취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징지을수 있으며 모든 형태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자아실현이란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성취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성취경향은 개인의 의복선택행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의 잠재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그 의복행동에 나타나는 표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Flügel⁹⁾은 장식성의 근본목적은 외모를 아름답게하여 타인에게 좋게 보이고 동시에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반면에 정숙성은 인간행동을 억제하는 금지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성적과시나 노출금지, 수치심, 아름답거나 화려한 의복의 금지 그리고 타인의 관심을 끄는 것을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강혜원²⁸⁾은 정숙성이란 의복에 있어서 신체

의 과도한 노출, 즉 옷이 많이 파지거나 몸에 밀착된것을 입을때 또는 보았을때의 느낌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최순희²⁹⁾, 정하신²⁰⁾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의복선택행동의 변인들중 정숙성을 가장 중시한다고 하였으며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한국여대생은 의복선택시 정숙성을 가장 중시한 반면 미국여대생은 미적측면을 중시하고 정숙성은 낮게 나타났다.²⁴⁾ 이러한 결과들은 정숙성이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Kefgen³⁰⁾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강혜원²⁸⁾은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성역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일수록 정숙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이은주³¹⁾와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승진²²⁾은 가정의 전통주의 가치지향성이 의복의 정숙성과 정적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강경자³³⁾는 학력과 수입이 낮고 자존욕구가 낮은 기혼여성일수록 의복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정숙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측면에 가치를 둔다고 하였다. Morris³⁴⁾는 정숙성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원리는 똑 같다고 보고 성적인면의 노출을 방지하려는 시도가 큰 사회일수록 의복으로 신체를 가릴려는 면이 더 많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김광경¹⁸⁾, 이명희¹⁷⁾등은 정숙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의복의 심미성에 관심이 낮다고 하였다. Roland³⁵⁾, 김광경¹⁸⁾, 홍금희²²⁾ 등의 연구에서 모두 의복변인중 심미성을 가장 중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인자³⁶⁾는 연령이 젊은 세대일수록 미적가치가 높고 학력, 월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정호³⁷⁾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의복에서 심미성을 중시하고 연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이선재³⁸⁾는 학력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 있는 여성이 의복의 심미적 측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Klassenm Humphery 및 Creekmore³⁹⁾는 남여학생 모두 자기존중감과 의복의 심미성간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김순구⁴⁰⁾도 남, 여학생 모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은 높지만 정숙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

고하였다. Pasknak와 Ayres⁴⁰⁾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실현하위변인중 자기수용성과 현재지향성이 유행지체자 집단보다 유행혁신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화연⁴²⁾은 서울시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미적가치관이 혁신전달자나 혁신자, 의사선도자 집단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이 모두 높았으나 추종자와 부관심자 집단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 두연구에서 근거해 볼 때 미적가치관이 높은 집단에서 자기수용성이 높고 현재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대구, 진주에 거주하는 20-50대의 기혼·미혼여성으로 하였다. 1988년 6-8월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총 647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자아실현 검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Maslow의 자아실현 이론에 근거를 두어 자아실현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인을 측정하도록 제작된 김재은·이광자의 자아실현 검사이다.⁴³⁾

이 검사의 내용은 두개씩 짝지워진 130개의 문항이 서로 대조되는 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는 두개씩 짝지워진 각 글 중에서 자신의 가치기준과 부합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검사에 포함된 하위척도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성 (Tc/Ti:Time Competent/Incompetent)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중심으로 과거지향적과 현재지향적 혹은 미래지향적으로 구별하여 측정한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비교적 현재지향적이다.

(2) 지향성 (Other Directed/Inner Directed)

한 개인의 행동양식의 자신을 향해있는지 타인을 향해있는지를 측정한다. 이 점수가 높으면 내부 즉 자기지향적인 사람이고, 낮으면 타인지향적인 사람이다.

(3) 자아실현성 (SAV:Self Actualizing Values)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으면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긍정하는 사람임을 의미한다.

(4) 실존성 (Ex:Existentiality)

자아실현성을 보충하는 척도로서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치나 원칙을 적용하는데 융통성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치의 적용에 대하여 융통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5) 감수성 (FR:Feeling Reactivity)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을 나타낸다.

(6) 자발성 (S:Spontaneity)

이 점수가 높으면 자발적인 행동으로 감정표현을 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며, 낮으면 감정표현에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7) 자기긍정성 (SR:Self Regard)

자존감에 대한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으면 자기 자신이 가치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여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점수가 낮으면 자기를 무가치한 쓸모없는 인물로 생각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8) 자기수용성 (SA:Self Acceptance)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점수가 낮으면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석한다.

(9) 인간관 (NC:Nature of man, Constructive)

이 점수가 높으면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것을 의미하며 낮으면 선보다 악에 가깝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10) 포용성 (C:Capacity for Intimate Contact)

이 점수가 높으면 인간관계를 어떤 기대나 의무감 없이 친근하게 가질수 있음을 의미하고, 낮으면 원만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의복의 정숙성·심미성 측정

의복의 정숙성·심미성 척도는 선행연구^{17) 18) 21) 23)}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이 척도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단계로 평가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밝히기 위하여 반분법(split-half method)을 실시한 결과 정숙성·심미성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736, .657로 나타났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연령, 학력, 월수입, 결혼여부, 가족형태, 성장지역, 종교, 직업으로 하였다. 연령은 20대(N=292), 30대(N=192), 40대이상(N=163)이며 학력은 중졸(N=33), 고졸(N=258), 전문대(N=63), 대졸(N=293) 그리고 월수입은 30만원이하(N=62), 30-49만원(N=147), 50-69만원(N=218), 70-89만원(N=114), 90만원이상(N=106)으로 하였다. 또한 결혼여부는 기혼(N=345), 미혼(N=302)으로, 성장지역은 도시(N=412)와 농촌(N=235)으로, 가족형태는 핵가족(N=494)과 확대가족(N=153) 그리고 종교유(N=356), 무(N=291)와 직업유(N=285), 무(N=362)를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미치는 관련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중다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인 중 명목변인인 결혼여부, 직업유무, 성장지역, 종교유무, 가족형태를 가변인으로 전환시킨 후 모든 변인들간의 상관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표1)로 구하였으며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는 변인들만 선별하여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각 변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성 및 이러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의 절차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아실현 변인을 독립변인, 의복의 정숙성 및 심미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2개의 경로모형이 설정되었다.

IV. 결과 및 고찰

1.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표 1〉은 본 연구에 포함된 인구통계학적변인, 자아실현변인, 의복의 정숙성, 심미성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의복의 정숙성·심미성간의 상관을 보면 두 변인은 負적 상관을 보여 정숙성이 높은 사람은 심미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17) 18)}과 일치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자아실현 및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부분적으로 상관을 보여 환경이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의복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해 준다.

자아실현과 의복선택행동과의 상관을 보면 의복의 정숙성은 자아실현 하위변인중 자아실현성 및 인간관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의복에서 정숙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고 인간관이 높지만 대체로 자아실현 하위변인과의 관련성이 낮은 편이었다. 또한 의복의 심미성도 자아실현과 유의적인 상관을 보여 자아실현 하위변인중 시간성, 지향성, 자아실현성, 감수성, 자기긍정성, 인간관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의복에서 심미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현재지향적이고 내부 즉 자기지향적이며 자아실현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수성과 자존감이 높고 인간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를 성취하려는 표현이 의복선택행동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 특히 의복에서 심미적인 행동은 자아를 실현하려는 표현적인 행동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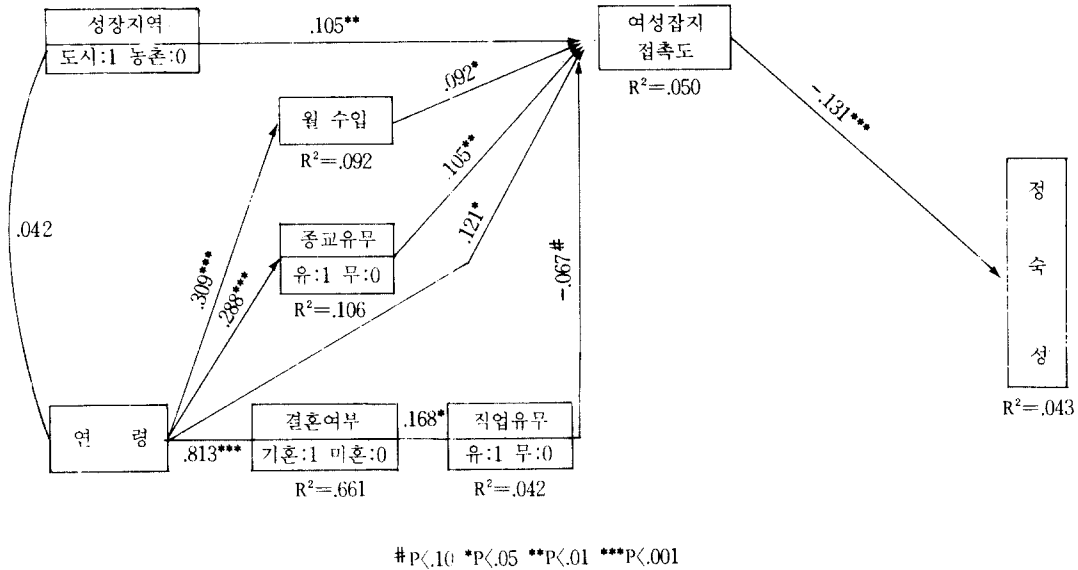
2.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의 경로분석

의복의 정숙성 및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아실현 하위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 및 경로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정속성	1.000																					
(2) 심미성	-.196	1.000																				
(3) 시간성	-.040	-.081	1.000																			
(4) 지향성	.039	.106	.402	1.000																		
(5) 자아실현성	.082	.233	.287	.587	1.000																	
(6) 실존성	.057	.039	.333	.591	.217	1.000																
(7) 감각성	.039	.121	.203	.599	.422	.323	1.000															
(8) 자발성	-.011	.048	.315	.643	.456	.309	.444	1.000														
(9) 자기긍정성	-.046	.145	.291	.508	.508	.237	.235	.357	1.000													
(10) 자기수용성	.005	-.051	.332	.514	.100	.391	.190	.299	.121	1.000												
(11) 인간관	.115	.195	.376	.403	.449	.236	.170	.282	.326	.136	1.000											
(12) 응용성	-.024	-.016	.281	.623	.211	.529	.525	.456	.224	.337	.141	1.000										
(13) 연평	-.132	-.161	.089	.221	.267	.211	.173	.044	.116	.117	.283	.097	1.000									
(14) 결혼여부(기혼)	.102	.180	-.108	.279	.303	.220	.219	-.091	.170	.123	.286	-.102	.813	1.000								
(15) 학력	.085	.198	.102	.190	.221	.181	.139	.042	.118	.113	.223	.024	.606	.570	1.000							
(16) 월수입	.054	.099	.028	-.034	-.007	-.082	-.037	-.032	.044	.088	-.052	-.089	.305	.244	.024	1.000						
(17) 직업유무(유)	-.046	.018	.076	.028	.023	-.034	-.016	.112	.071	.058	.081	.011	.171	.196	.126	.054	1.000					
(18) 상장지역(도시)	-.050	.026	-.032	.021	.031	-.028	.050	.040	.009	.001	-.040	-.024	.042	.004	.124	.252	.005	1.000				
(19) 종교유무(유)	.081	-.098	-.045	-.123	-.070	.157	.059	.010	.026	.119	.190	.027	.327	.249	.229	.042	.109	.008	1.000			
(20) 가족형태(핵)	-.010	.052	.068	.091	.065	.065	.078	.050	.063	.044	.059	.051	.058	.048	.044	.011	.016	.056	-.057	1.000		
(21) 여성암지침속도	-.144	.102	-.047	.006	.026	-.034	.019	.009	.068	.040	-.060	-.043	.091	.032	.027	.131	.036	.136	.116	-.023	1.000	
Mean	27.019	27.672	49.618	44.487	49.387	47.892	48.699	52.822	49.969	49.306	54.387	47.694										
S.P	3.405	3.729	9.996	9.307	10.876	10.315	10.146	9.549	11.471	9.676	10.781	9.637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의복의 정숙성에 대한 경로분석

1) 정숙성

의복의 정숙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의복의 정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여성잡지접촉도(P<.001)이며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아실현의 어떤 하위변인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잡지접촉도는 정숙성에 직접적인 영향($\beta = -.131$)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으로 나타나 정숙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여성잡지를 많이 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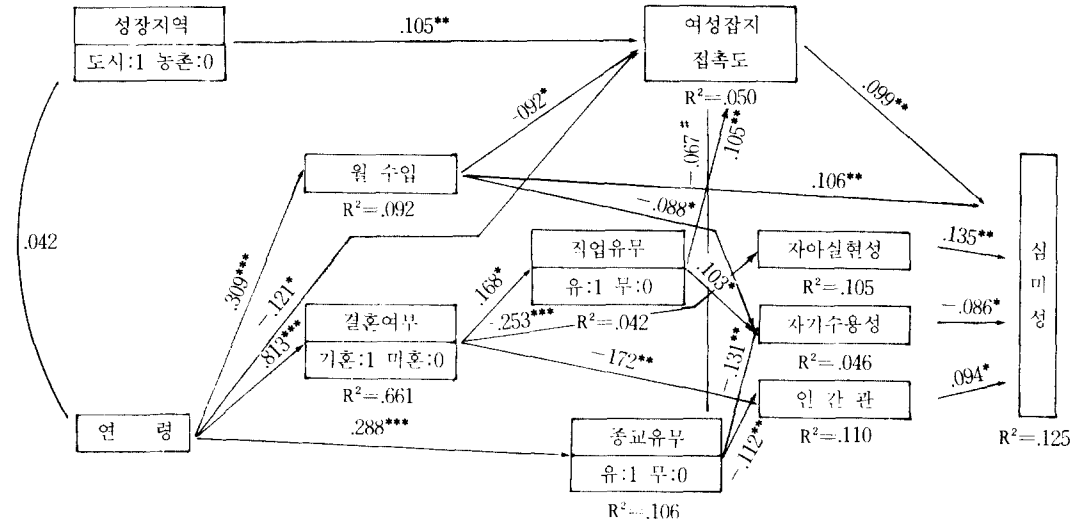
여성잡지접촉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보면 성장지역(P<.001), 종교유무(P<.01), 연령(P<.05), 월수입(P<.05), 직업유무(P<.10)이며 이들 변인들은 여성잡지접촉도를 통해서 정숙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의 정숙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여성잡지접촉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도시사람보다 농촌사람이 높고 ($\beta = .105$), 종교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일수록 ($\beta = .105$) 그리고 월수입이 낮을수록 ($\beta = .092$) 여성잡지를 적게 보고 또한 직업을 가진 미혼 여성일수록 ($\beta = -.067$) 여

성잡지접촉도가 높았다. 이는 Creekmore²⁰, 김광경¹⁸⁾ 등이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이 정숙성을 중시한다고 하여 종교와 정숙성간의 관련성을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 유무가 정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종교를 가지는 계층이 다양해짐으로서 종교를 가진 특정인만이 종교의 영향때문에 의복을 통해서 정숙한 측면을 강조하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자아실현변인과 인구 통계학적변인 중 어떤 하위변인도 의복의 정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은 물론 자아실현변인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의복의 정숙성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도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에서 정숙성은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표현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2) 심미성

의복의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P<.10 *P<.05 **P<.01 ***P<.001

(그림 2) 의복의 심미성에 대한 경로분석

먼저 의복의 심미성에 매개변인으로 사용하는 자아실현 하위변인은 자아실현성과 자기수용성, 인간관으로 나타났다.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결혼여부(P<.001)로 나타나 미혼여성의 자아실현이 기혼여성보다 높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³³⁾와 일치한다.

다음 자기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종교유부(P<.01)와 직업유부(P<.01) 그리고 월수입(P<.05)이며 종교유부와 월수입은 負의 영향을 ($\beta = -.131$, $\beta = -.088$) 미쳤다. 즉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beta = .103$)이, 종교를 갖지않는 사람 그리고 수입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는 자기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결혼여부(P<.01)와 종교유부(P<.01)이며 이들 변인들은 負의 영향($\beta = .172$, $\beta = -.112$)을 주었다. 즉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인간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심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성잡지집속도(P<.01)와 월수입(P<.01)이며 자아실현 하위변인으로는 자아실현성(P<.01)과 인간관(P<.05) 그리고 자기수용성(P<.05)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심미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변인은 자아실현성으로 자아를 성취하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beta = .135$) 의복에서 미적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경향은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식의 목적이 자기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Craig¹⁵⁾의 견해를 지지해주고 여성들이 의복을 통해서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일려고 하는것은 자기를 성취하려는 하나의 표현방법이 되고 의복이 그러한 자기표현의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월수입이 높을수록 ($\beta = .106$) 의복에서 심미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입수준이 높은 여성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의복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하므로서 미적표현에 관심이 높은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층이 높은 기혼여성일수록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의복의 심미적인 가치관에 미치는 관련변인을 밝힌 선행연구³³⁾들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월수입은 어떤 경로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들 결과에서 볼 때 수입은 의복행동의 선택준거가 되는 의복가치관 특히 심미적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제로 의복을 구매하

는 행동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입수준이 심미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의복을 구입할 경우 가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때문에 수입수준이 심미적인 의복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의복선택시 심미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어 월수입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간관이 높을수록($\beta=.094$) 의복의 심미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 즉 인간관은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beta=-.172$)이 높았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기수용성이 낮을수록($\beta=-.086$) 의복에서 심미성이 높게 나타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의복의 심미적인 측면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적가치관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유행혁신자 집단에서 자기수용성이 높다고 보는 Pasmak와 Ayres⁴¹⁾의 견해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직업유무, 종교유무, 월수입은 자기수용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가 없고, 직업을 가진, 그리고 월수입이 낮은 여성일수록 자기수용성이 높아 의복선택에서 심미성을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³⁹⁾에서 학력은 의복의 심미적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안전욕구를 거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미적인 측면에 두는 가치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력 및 가족형태는 어떤 경로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의복의 선택준거가 되는 의복가치관 특히 심미적가치관과 실제로 행하게되는 심미적인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은 환경변인인 학력과 월수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의복

행동 특히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실현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관련시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아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자아실현 하위변인중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여부이며 자기수용성에는 종교유무, 직업유무, 월수입이, 그리고 인간관에는 결혼여부 및 종교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를 성취하려는 성향은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이 높고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않고 월수입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는 자기수용성이 높았다. 또한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선하게 보는 인간관은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이 그리고 종교를 갖지않은 사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복의 정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성잠지접촉도이며 자아실현 하위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중 어떤변인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 종교유무, 직업유무, 월수입, 성장지역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여성잠지접촉도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의 심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실현 하위변인으로 자아실현성과 자기수용성, 인간관이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월수입, 그리고 여성잠지접촉도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형태와 학력을 제외한 연령, 종교유무, 성장지역, 월수입, 직업유무는 여성잠지접촉도를 통해서, 결혼여부는 자아실현성과 인간관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유무, 직업유무, 월수입은 자기수용성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에서 심미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아실현성이 높고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선하게 보는 성향이 높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는 자기수용성이 낮았으며 여성잠지접촉도가 높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의복의 심미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 반면에 정숙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여성잡지접촉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도시보다 시골사람이 높고 또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과 월수입이 낮은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미치는 관련변인을 살펴볼때 의복의 심미성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자아실현하위변인과 의복의 심미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아실현은 의복의 심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의복에서 심미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아를 성취하는 표현수단이 되고 의복이 그 표현의 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숙성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자아실현 하위변인 및 의복의 정숙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않고 있으며 또한 자아실현의 어떠한 하위변인도 정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에서 정숙성을 심미성과는 달리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표현수단으로 정숙한 측면을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단순히 전통에 관련된 관습적인 측면에서 볼것인지도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복의 정숙성에 타요인이 작용할수 있는지 다른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pp. 41-43
- 2) Wundt, W., *Element of Folk Psychology* (N. Y: The Macmillan Co), 1916, p. 532, cited by Ryan M.S. op. cit. 1966, p. 41
- 3) Schurtz, H., *Grundzüge einer philosophie der Tracht*, 1891, p. 141, cited by Sanborn H.C., "The Function of Clothing of bodily Adornment",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 38, 1926, pp. 4,12, 이명희,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2. p. 7.에서 재인용.
- 4) Flü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1), pp. 19-20, 54
- 5) Ellis, H.,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z*, Vol. 1 (N.Y: Random House), 1936, pp. 1, 58. Cited by Engelbrecht, W.M., "Modesty in Relation to Women's Dress", Master's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1963. p. 8.
- 6) Hurlock, E.B., *The Psychology of Dress* (N.Y: ARNO. Press, 1976, pp. 15-18.
- 7) Rudofsky, B., *The Unfashionable Human Body* (N.Y: Anchor Book). 1974, pp. 12, 27-29.
- 8) Langner, L., *The Importance of wearing Clothes* (N.Y: Hastings House) 1959, pp. 39, 72.
- 9) Latzke, A and Hostetter, H.p., *The wide world of Clothing*, N.Y: The Ronald press Co, 1968, pp. 17-19.
- 10) Anspach, K., *The why of Fashion* (Ames, Iowa: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1. p. 254.
- 11) Thomas, W.I., *Psychology of Modesty and Cloth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 1899, pp. 246-262.
- 12) Jackson, P.A., Modesty Attitudes Related to Current Fashion as Expressed by Undergraduate University woman, Master's thesis, Texas Tech University, 1973, p. 5.
- 13) Goffman, E., Attitudes and Relationalizations Regarding Body Exposure, In Roch, M.E and Eicher J.B.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5, pp. 50-52.
- 14) Starr, F.I., *Dress and Adornment*, pop, Sci. Mon. 39. 1891, pp. 787-801, Cited by Ryan, M.S., 1966, p. 42.
- 15) Mcjimsy, H.T.,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Ames: Iowa State Univ. Press, 1973, p. 5.

- 16) 이명희,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2.
- 17) 김광경, 일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 18) 전경숙, 여대생의 의상행태에 대한 남자대학생의 관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0.
- 19) Goldstein, K., *The Organism*, New York: American Book Co., 1939, pp. 305-323, 이상노, 이관용., 성격의 이론, 서울:중앙출판사, 1985, pp. 266-270, 에서 재인용.
- 20) Creekmore, A.M., *Clothing Behavior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 State Univ, 1963.
- 21) 홍금희, 수용성, 경직성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간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22) 정하신, 이인자, 의복선택요인과 욕구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7(1), 1984, pp. 27-34.
- 23) 강경자,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가치관과 의복선택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3), 1986, pp. 31-42.
- 24) 임춘봉,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25)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aw, Publishers, 1970, p. 46.
- 26) Rogers, C., *The actualizing tendency in relation to "motives":and to Consciousness*, In M.Jones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II, Lincoln, Neb.: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3, pp. 1-24, 이훈구, 성격심리학, 법문사, 1985, pp. 450-453에서 재인용.
- 27) 강혜원,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적 의복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3), 1979, pp. 1-10.
- 28) 최순희, 여성의복행태에 대한 남여별 반응과 가족가치관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29) Kefgen, M. & Specht, I.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3rd ed., N.Y: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1, pp. 68-70.
- 30) 이은주,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개인의 의복행동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7(1), 1983, pp. 42-52.
- 31) 양승진, 고등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욕구 및 가정의 가치지향성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1), 1986, pp. 32-33.
- 32) 강경자, 서영숙.,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3(1), 1989, pp. 1-12.
- 33) Morrios, D., *Clothing Signals: "Clothing as Display, Comfort and Modesty"*, Gurel, L.M., and Beeson., M.S eds.,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3d ed, (Dubuque, Iowa:Kendall Hunt publishing Co.), p. 8, 이명희, 1982, p. 12에서 재인용.
- 34) Roland, R.H., *Development of and Instrument for Determining Women's Attitudes toward Dress of a specified Type*, Unplished Master's thesis, Ohio state univ:1958.
- 35) 이인자, 주부들의 의상가치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제2집, 1978, pp. 64-75.
- 36) 김정호, 사회계층과 의복행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37) 이선재, 한국여성의 의복선택요인과 가치관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아세아연구소, 1983, pp. 99-132.
- 38) Klassen. H, Humphery. C, and Creekmore, A.M., *Clothing and Self-Concept at adulecent*, *J. of Home Economics* 63, 1971, pp. 246-250.
- 39) 김순구,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 여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 10(1), 1986, pp. 1-8.
- 40) Pasnak, M.F.D & Ayres, R.W., Clothing Attitude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novators, *J. of Home Economics*, 61(9), 1969, pp. 698-702.
- 41) 이화연, 이은영, 유행선도력에 관한 연구-유행선도력에 따른 집단의 특성-. *한국외류학회지* 13(1), 1989, pp. 67-77.
- 42) 김재은, 이광자, 자아실현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연구소, 서울, 1977, pp. 3-15.